

[사브 소식: 2023년 10월 10일]

사브, ADEX 2023에서 혁신적인 방산 기술 선보여

선도적인 방위산업 기업 사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2023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참가해 다양한 최첨단 솔루션과 기술력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전시부스 C505)에서는 수십 년간 축적된 사브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는 멀티 도메인 공중조기경보통제(AEW&C) 솔루션 글로벌아이(GlobalEye)와 최첨단 전자전 솔루션, 소형·경량·고성능 3D 레이더 지라프(Giraffe) 1X, 칼 구스타프 (Carl-Gustaf®)와 M4, AT4, LNAW 등의 지상 전투 시스템, 훈련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AUV62 대잠전투훈련 시스템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아이는 사브의 30년 이상의 AEW&C 역사가 내재된 현존 최고, 최신 성능의 공중 감시 솔루션으로 현대적인 능동형 및 수동형 센서가 결합되어 단일 플랫폼에서 공중, 해상 및 지상의 위협을 원거리에서 조기에 탐지 및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헨릭 론(Henrik Lönn) 사브코리아 대표이사는 “사브의 핵심 시장인 한국에서 열리는 서울 ADEX에 참가해 우리의 광범위한 첨단기술 및 솔루션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사브 부스 방문객들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위협 환경에서 우리의 고객들이 전장 지배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사브가 어떻게 이들을 지원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브는 글로벌아이 소개와 함께 한국의 2차 공중조기경보프로그램을 위한 사브의 주요 제안사항을 설명하는 미디어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Contact

Saab Press Centre
+46 (0)734 180 018
presscentre@saabgroup.com

Edge Communications
+82 2 734 2742
aria.lee@edgecomms.net



SAAB

CUE 23:059 K

<미디어 브리핑: 글로벌아이(GlobalEye), 대한민국의 공중조기경보통제 역량을 강화시키다 >

일시 및 장소: 10월 18일(수) 오전 10시 / 미디어 컨퍼런스 룸

브리핑 주요 내용:

- 글로벌아이(GlobalEye) – 주요 성능 및 국내 운용 시 이점
- 스웨덴 공군 – 스웨덴 공군 운용 시나리오, 작전환경 및 글로벌아이의 이점
- 국내 방산업계 혜택 – 사브와의 협력 기회

사브는 국가가 자국민과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변함없는 사명을 가진 선도적인 방위산업 기업이다. 1만 9,000 여명의 유능한 인재와 함께 사브는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사브는 항공, 무기, 지휘 및 제어, 센서 및 수중시스템 분야의 첨단 시스템의 설계, 제조 및 유지보수를 제공한다. 스웨덴에 본사가 위치한 사브는 전 세계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다수 국가의 국방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브는 20년 이상 한국에서 공고한 입지를 구축해 왔으며, 한국 정부 기관 및 방위산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상 전투 시스템, 미사일 시스템 및 첨단 레이더 기술과 같은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Saab AB (publ)
SE-581 88 Linköping
Sweden

Registration no.: 556036-0793